

청하이름상사

신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며,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뉴스잡지 1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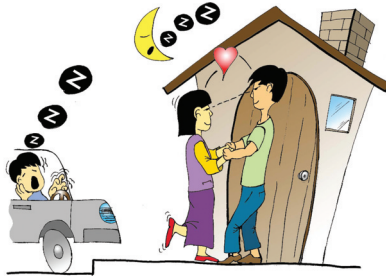
감히 방해할 수 없어서

비디오 No. 516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원문 중국어)

이제 사귀지 얼마 안 되는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강렬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만난 지 이제 겨우 10년 ‘밖에’ 안 났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강렬하게 느끼잖아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어느 날 두 사람은 춤을 추러 갔다가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에도 여전히 헤어지기가 아쉬워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모르며, 길을 건다 멈춰 서서는 포옹하기를 끝없이 반복하며 밀어붙 속삭였습니다.

이 때, 한 젊은 남자가 그들의 차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나와



그들을 지나가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서서 그들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던 그는 또 다시 차로 돌아갔습

니다. 그는 몇 차례나 이렇게 반복하더니 마침내 길 한쪽에 서서 이 연인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집을 욤다가 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마침내 연인인 남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30분이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요?”

“원하는 건 없소. 난 단지 당신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오!”



말이야!”

대단한 중고차

비디오 No. 516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한 남자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왕 선생, 지난 주에 산 중고 차, 운전하니 어때?” “말도 마! 끔찍해!” 왕 선생이 대답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러운 차는 내 생전 처음이야! 게다가 차의 구석구석마다 소리가 나는데, 경적만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16

노부인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좀 해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 데요?” 의사가 묻자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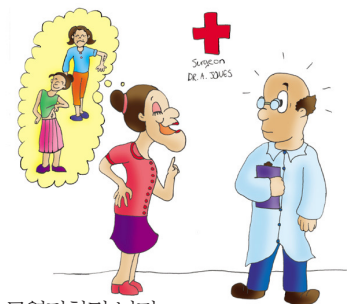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수술만 하면 돼요.”

“아픈 데도 없는데, 수술을 하고 싶다고요? 어디를 수술해야 하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디든 좋으니 수술만 해주면 된단니까요.”

“정말 이상하군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노인협회 회원인데, 우리 회원들은 다들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였다하면 날마다 수술했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술한 적이 없어서 말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앞표지 안/ 스승님 농담

감히 방해할 수 없어서/ 대단한 중고차/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2 스승님 말씀

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다

3/19 감로범어

4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일본/ 포모사/ 헝가리/ 호주

9 시

당신의 사랑-깨달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10 진실한 이야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만족하고 행복하라!

14 골라 뽑은 수행문답

자유 의지와 신의 뜻/ 양심은 최고의 증인

16 토막소식

찾기 쉬운 수행문답

17 수행일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중 출타기

18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신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다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시험을 통과해 성장하라

23/28 지혜어록

어디서나 신의 복음을 전하라/ 깨달은 사람의 관점/
관음법문은 가장 진귀한 보물

24 수행의 길목에서

선 행사를 통한 수확과 성장

25 영혼의 고양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가곡창작집

26 이야기 세상

잡자는 미녀

29 신기한 감응

신의 훌륭한 도구/ 수술 중 스승님과 함께 한 여행

32 사랑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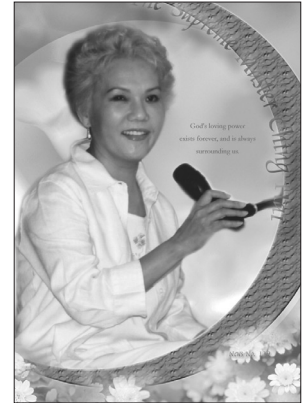
미국 뉴저지/ 포모사/ 감사장과 영수증

36 관음 웹사이트

37 전 세계 연락처

뒷표지/ 무상예술

해피요기 세상/ 영혼을 올리는 그림-향수



신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며,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청하이 무상사~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9호

출판일자 : 2002. 5. 1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아물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
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1. 9. 25.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 No. 152

생각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또한 그것은 실재하는 것으로서 신의 품성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신을 기억하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우리 생각이 신성하고 순수하며 무조건적이에요. 그때는 오직 신성한 진동과 강력한 축복만이 남게 되어 그 어떤 나쁜 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축복이나 생각의 힘이 우리 주변과 환경에 생기면 주변의 자장도 높아집니다. 또 우리와 같이 성스런 수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축복, 같은 힘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힘들이 유유상종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면 매우 강력한 힘이 형성되어 세상의 사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나날이 정화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나 전도를 하지 않아도 세상을 도울 수 있지요. 물론 밖에 나가 전도

한다면, 우리 내면의 높은 진동을 청중의 마음 속에 전해 그들을 일시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히, 혹은 아주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높은 진동력을 갖고 집에 돌아가 키워나가면, 신성한 자장 속에서 점점 더 안정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신성하게 바뀌어 순수하고 안정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다수이며 거대한 사고의 응집체인데 반해 우리는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 한쪽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하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진동, 강력한 축복을 세상에, 크게는 우주로 내보낼 수 있습

니다. 우리가 신을 기억하고 신의 고귀한 명호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순수하고 신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 순간에는 우리와 같은 의식 등급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긍정적인 힘을 모아 세상을 정화해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자신, 우리 생각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을 키워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장이 깨끗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꼭 이웃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순간 순수한 생각과 무조건적인 사랑, 선의(善意)를 베풀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하지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대보살이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주변의 부정적인 힘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순수함을 잘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훌륭한 것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진정으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로도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인 보호력과 청정하고 선량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부정적인 힘에 오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불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이름은 입문할 때 스승의 힘으로 가피를 받은 것으로서 이른바 법맥(法脈), 혹은 법통(法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맥이 없다면 오불은 공허한 말로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세속의 부

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개인수표를 발행한다 해도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표를 결재할 계좌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수행의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영성을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수행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야만 성인이나 스승들이 사람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힘을 깨우칠 수 있지요. 나무에서 불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불을 피우려면 이미 불이 당겨있는 다른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불을 피울만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은 그 자신의 영적인 힘을 계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천 수백만 사람에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승의 경지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도 크며, 이러한 사실은 스승과 연결되면 알게 됩니다. 영적 스승과 함께 있으면 아주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나쁜 생

각을 품고 있거나 매우 거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워지지요. 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향력으로서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우리 생각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불을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오불은 매우 중도적이며 신성하고 강력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세속적인 마음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때로는 국가적 풍습이나 사회의 조류, 대중적 습관에 의해 결정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생각은 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강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이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하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29/mt.htm> (포모사)

<http://Godsdirectcontact.org/eng/news/129/mt.htm> (미국)



청하이 무상사/ 1993. 3. 27. 미국 하와이
(원문 영어) 비디오 No. 341

천상의 빛은 우리 영혼에 내재한 수전, 수억 겁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우리 삶의 일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삶의 방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오직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소식

캐나다 소식

세인트루이스에 피어난 진리의 꽃

영적 지혜의 보고(寶庫)



[밴쿠버]

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밴쿠버 입문자들은 최근 시내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에는 스승님의 책과 테이프가 전시되어 있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료를 빌려 집에서 편안히 스승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최근 밴쿠버 시내 두 곳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서관 개관 소식을 알렸다. 강연회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관심이 커진 참석자들은 후일 도서관을 방문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전단지들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었다. 🔔

[세인트루이스] 2001년 11월 4일 미주리 동수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방편법 및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미주리 센터에는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동수들이 없었지만, 우리는 서쪽으로 가는 관문이자 거대한 금속 아치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이



도시에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름을 받은 듯 느껴졌다.

스승님의 사랑이 온 행사장을 감싼 가운데, 먼 곳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온 헌신적인 동수들을 통해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을 한층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렸으며, 앞으로도 이런 강연회가 자주 열릴 것 같았다. 🔔

코스타리카 소식

채식 요리 강습회

[산호세]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2001년 11월 18일과 25일, 센터에서 일요일 요리 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에서는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한 채식 음식 요리법을 설명했고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상식을 소개했다.

입문자와 예비 입문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지

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요리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채식 음식을 맛보았다. 요리는 어울락 요리에서 중국 요리, 코스타리카 요리까지 다양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감탄의 소리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입문을 고대하는 예비입문자들은 강습회를 통해 채식에 대한 신심을 키우고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

페루 소식


기대를 뛰어넘은 페루의 첫 번째 선 행사

[트루히요] 2001년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트루히요 센터 동수들은 첫번째 선 행사를 치렀다. 선 장소로는 카치카단(Cachicadan)이 선택되었는데, 페루-안데스산맥 해발 2,800 미터에 위치한 이곳은 도시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서 이곳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매우 낙천적이다.

선행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명상에 완전히 몰두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안배를 통해 아름다운 이곳에서 모든 것이 놀라우리 만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 장소는 매우 고요했으며, 날이 화창해서 밤에

는 별이 총총했다. 게다가 선 장소에서 250미터 떨어진 곳에는 치유효과가 있다는 70도의 원시온천이 있었다.

우리는 기쁨과 만족 속에 선 행사 첫날을 마쳤다. 모두 놀라운 체험을 했으며 스승님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튿날은 더욱 경이로웠는데, 처음으로 삼매에 들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기 때문이다.

카치카단에서 지내는 동안 얻은 깨달음과 체험에 대해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우리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선 행사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동수들이 참석해 스승님의 축복 속에 선 행사의 즐거움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 장소를 트루히요 근처로 잡기로 했다. 

한국 소식

한국에 부는 채식 열풍


[일산과 전주] 2001년 11월 11일 한국 동수들이 일산과 전주에서 각각 새로운 채식식당을 개업했다. 서울 센터에서 운영하는 SM 채식뷔페는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에서의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운영해 왔는데, 채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점차 지명도를 얻게 되었다. 채식주의는 특히 육류 파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더욱 보편화되었다.

한국인이 채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채식 식당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동수들은 최근 불기 시작한 채식 열풍에 고무되어 두 곳에 채식식당을 열게 되었다.

일산의 J&J 채식뷔페는 두 배의 즐거움(Joy&Joy)의 약자로 이름지어졌다. 한국에서 가장 큰 채식 식당인 이곳은 서울 센터 동수들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어 채식을 전파하고 있다.

식당의 개업식에는 500명의 손님과 입문자들이 참석했다. 개업 전부터 단체 예약이 들어왔는데, 오륙 백 명 분량의 음식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손님들은 채식음식의 맛에 격찬하며 채식 요리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같은 날 전주에서는 방편법 수행자들이 건강 채식인의 집을 개점했다. 식당은 공간이 넓어 좌석을 많이 갖춘 데다 밖에도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북 채식운동 모임과 연대해 열린 개업식에는 많은 입문자들과 채식단체가 참석했다. 또 채식요리 시연회와 다양한 채식 관련 강연이 진행되

기도 했는데, 개업식이 끝난 후에는 모두 시내에 나가 채식을 홍보했다. 



J&J 채식뷔페가 개업식 당일 성황을 이룬 가운데 손님들에게 맛있는 채식 요리를 선보였다.

일본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 음식을 나누다

【도쿄】 도쿄 동수들은 2001년 11월 18일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과 다양하고 맛있는 채식 요리를 나누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인터넷에 이 행사에 관한 소식을 올리고, 채식 단체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냈다.

강연회는 미국에서 온 한 부부의 감동적인 수행 체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 시청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관음사자는 하나씩 모두 답변해 주었다.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의사인 동수가 직업적인 관점에 비추어 유머스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채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류나 어류,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식사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 동수들의 설명은 참석자들에게 의학적인 면에서의 채식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영적 수행에 대한 믿음을 깊게 만들어 과반수가 방법법을 배우게 되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채식 시식회를 열어 동수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채식 요리를 선보이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채식 요리 및 중국 차 시음회가 열렸다. 손님과 입문자들은 모두 화목한 분위기 속에 풍성하게 준비된 요리를 즐기며 신의 사랑과 은총을 흠뻑 누렸다.



포모사 소식

박람회와 센터 활동 전시회

【시후】 2001년 11월 18일 시후 도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박람회가 열려 수천 명의 포모사 동수들과 귀빈들의 발길을 끌었다.

박람회에는 작년 많은 환영을 받았던 행사를 살려 40여 종의 전통 음식과 과자, 음료 등 풍성한 “채식 축제”가 열렸으며, 이 외에도 포모사 각 센터의 활동들에 대한 전시회, 어린이들을 위한

무지개 정원에서의 놀이 행사, 방법법 전수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포모사 센터 활동 전시회는 매우 참신한 행사였다. 동수들은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 전시장을 꾸미고 각 센터의 뛰어난 특색을 전시했다. 글과 그림이 들어간 게시물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관음가족들의 발전과 성장 모



스웨덴 옉살라 대학 의과대학에서 온 손님들이 시후 도장에서 센터 활동 전시회를 참관하다

습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타오웬 센터는 인터넷 자료를 만들어 즉석에서 VCD를 방영했다. 독특하고 생생한 이 프레젠테이션은 전시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 옘살라 대학 의과 방문단도 이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다. 동수인 교수의 인솔로 시후를 찾은 22명의 방문단은 동수들의 안내 속에 박람회를 즐겼다. 그들이 한의학 및 대체 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자 한 의사 경력이 있는 한 동수가 멀리서 찾아온 이 손님들을



동수들이 친지들과 함께 전통 채식음식을 맛보다

접대하며 수행과 의학의 상관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명상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대체의학이라고 소개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박람회는 오후 2시 반에 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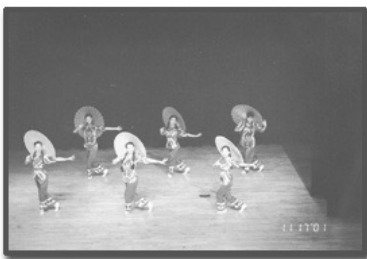
났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행사는 날씨도 화창하고 부드러운 산들바람까지 부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모두들 이렇게 즐겁고 의의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중산대학에서의 홍법 활동

[까오핑] 까오슝 시즈 해안의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보는 고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국립 중산대학은 포모사 남부의 이름높은 대학으로 많은 재능 있는 사회인력들을 배출했다. 또한 이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영적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수시로 영성 고양 강연회를 열곤 한다. 이번 2001년 11월 17일 캠퍼스 홍법은 환경공학 대학원장인 로 지충 교수의 제안으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까오핑 센터의 협력으로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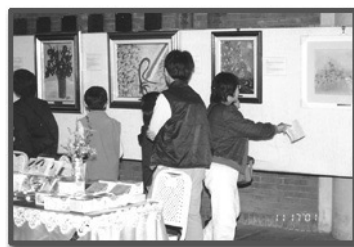
당일 행사는 크게 예술과 영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출판물을 전시하는 한편,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채식음식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 외 스승님이 참석하신 2000년 포모사 중앙연구원 세미나 실황 테이프를 상영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많은 손님들과 학생들이 방편법을 신청했으며, 방편명상이 끝난 후 거의 한 시간 가량 질문이 계속되어 진리를 갈구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이 스승님의 축복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를 희망했다. 동수들은 모두 이 홍법 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신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헝가리 소식

홍법과 영적 성장

[부다페스트] 헝가리 입문자들은 최근 두 차례의 비디오 강연회와 단체명상 일정표를 재조정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 홍법과 영적 수행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홍법 강연회

2001년 10월 중순, 한 동수의 제안으로 홍법 비디오 강연회가 부다페스트에서 200km 떨어진 헝가리의 또 다른 주요 도시 카포스바르에서 순조롭게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동수들과 어울려 열광적인 토론을 벌였으며, 절반 가량이 방법법을 배웠다.

지난 여름에는 당시 센터가 없었던 이웃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차레스트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가졌었다. 그때 우리는 루마니아의 중요 도시인 클루지 나포카에서 채식하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한 명상단체의

리더로 많은 채식주의자를 알고 있었다. 관음법문을 통한 칭하이 무상사의 일세해탈 보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몹시 고양된 그녀는 강연장을 예약하고 이 소식을 널리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11일 강연회를 진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과반수가 넘는 참석자들이 방법법을 신청했으며, 또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명상 시간 연장

부다페스트 센터는 일주일에 세 차례 단체명상을 했는데, 9.11 재난 이후 단체명상을 보강하라는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나서는 매일 저녁 단체명상을 열고 또 철야명상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 새로운 일정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선이행사가 열려 동수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일요일 오후까지 명상한다. 이 비공식적인 선 행사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져 최근 선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사저가 참석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이 종식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한편, 현재의 명상 일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소식


스승님의 빛이 퍼스를 비추다

[퍼스] 퍼스 센터는 2001년 11월 11일 도시 곳곳에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최근 열린 영성 박람회에 참가해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비영리 단체의 지역 내 활동을 무료로 광고해 주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커뮤니티 스위치보드(Community Switchboard)' 서비스를 통해 행사를 알리고, 퍼스의 모든 지역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실을 수 있었다. 비디오 강연회를 결정한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행사를 추진하는 듯 단시간 내에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애고의 방해물 벗어날 때, 스승님의 힘이 아무 걸림 없이 작용하며 그에 따라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 것

이 분명했다.

강연회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되었는데, 먼저 예년보다 30분 일찍 세계 평화를 위한 2분 묵념*을 했다. 이어 스승님의 비디오 중 '신을 위해 생명의 불을 들라'를 질의응답 부분까지 전편을 시청하는 동안 청중들은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했다. 우리는 질문에 대비해 답변할 동수들을 안배해 두었지만, 의외로 비디오가 끝난 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스승님이 모든 청중의 마음 속에 담긴 의문들에 답해 주신 것이 틀림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법을 배우기로 결정했으며, 또 관음법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퍼스 센터는 매우 작지만, 이제 스승님의 사랑과 인도로 성장하여 고양된 마음으로 다음 홍법 강연회를 고대하고 있다. 

*2분 묵념 — 1918년 11월 11일 11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선포되었다. 이후 영어권 국가들은 매년 이 때가 되면 2분간 묵념하며 사망자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당신의 사랑 - 깨달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원문 영어)

오, 나의 스승이시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길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당신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마음 외롭고 고독할 때
당신의 사랑이 내 옆을 지키시니
친구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마음 속으로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천상에서 흘러와
사랑의 천사처럼 나를 돌보시며
당신의 사랑, 한없는 자비심으로 가득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먼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이
내 괴로움과 번뇌를 달래 주시고
내 마음의 소리인 당신의 사랑은
내 생명, 내 구원이시며
고귀하고 또 고귀한 당신의 사랑은
비할 바 없는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오, 나의 스승이시여!
내가 어린애라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나를 달래주소서
영원토록
아멘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딜립 고탐 (네팔)
2001년 5월 1일 입문 후 스승님의 사랑과
가없는 은총을 누리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김 동수/ 한국 영동 센터 (원문 한국어)

‘수행자에게는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십 년 전 출가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큰 기대와 희망,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출가승으로 교육을 마친 후 나는 참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년 간 노력한 끝에 마음의 평정을 얻고 계속 수행해 나갔지만, 내면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또 나의 스승이 생사해탈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나는 수행하면서도 마음의 혼란을 느꼈으며,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다. 수행자에게 있어 자신의 수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한 사찰을 찾아 머물면서 하루에 세 차례씩 신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 그리고 이 수행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 내겐 이미 습관이 되어 싫증나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신실하게 절을 하면서 진리에 대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부터는 수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렇지만 평범한 대중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이 수행자로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고

의 진리를 찾는 승단에 대해 부끄러운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다. 과거 대수행자들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비롯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신실히 수행하여 도를 얻었다. 한 순간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수행에 전념하기에 알맞은 한 절로 들어갔다. 7일 동안 하루에 네 차례씩 시방삼세불에게 예불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내 깊은 갈망을 담았으며, 도에 대한 나의 갈망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나흘째 되던 날, 사시에불을 마친 나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가까스로 방으로 돌아왔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방이 눈부신 빛으로 환해지더니 노스님이 나타나 내게 말씀하셨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면 불보살의 가피를 얻을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을 향해 누워있었다. 그 순간 극심했던 피곤도 말끔히 사라져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안하고 힘이 솟아났으며 졸음도 없어졌다. 이 체함에 대한 감사와 내면의 법열로 인해 나는 나머지 사흘 동안도 매우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고, 나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다시 20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또 다시 어쩌면 내 수행생활의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안거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49일간 안거하기로 생각했지만, 60세가 넘은 내 육신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으며, 신심 역시 약해져 있어서 감히 큰 진보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굳은 마음으로 7주간의 안거를 마친 나는 앞으로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결실을 얻을 때까지 평생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변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밤늦도록 수행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손님이 떠날 무렵, 나는 한 신도에게 물었다. “자네는 무슨 수행을 하는가?” “관음법문을 합니다.” 그 대답에 나는 다시 물어보았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건가?” 그런데 그에게선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겁니다.” 그는 청하이 무상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줬지만,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더 자세히 캐물었다. 하지만 입문을 해야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음법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지만, 큰 관심이 일어나 나는 바로 다음 날 서울 센터를 찾아가 입문을 신청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12권을 사서 돌아왔다. 그런데 ‘즉각 깨닫는 열쇠’ 1권을 반도 읽지 않았는데 사방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졌다. 책에는 빛과 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으며, 책을 읽을수록 나는 더 많이 읽고 싶어졌다. 나처럼 거의 한평생을 참선수행을 하며 선(禪)적인 생각이 깊이 박힌 사람들은 대개 스승님의 가르침을 믿기 어렵지만, 나는 이틀 동안 책을 읽으면서 이 법문이 올바르며 또한 수행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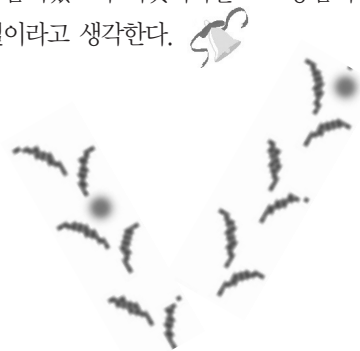
마침내 나는 입문을 받았는데, 입문식은 한밤중에 끝났다. 새 입문자들이 체험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나는 마음이 조금해졌다. 심지어 입문식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

다. 입문 당시 모든 것이 낯설고 매우 긴장한 상태여서 나는 내가 체험을 했는지 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단체명상 때, 스승님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스승님이 내 옆을 지나치실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스승님께 절을 했다. 스승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인사하시며 한참동안이나 자비롭고 진지하게 바라보셨다.

저녁 명상 때 다시 나오신 스승님은 남미 동수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스승님이 그들의 이마와 머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단상으로 달려가 스승님의 손길을 기다렸다. 스승님은 단상을 떠나실 무렵 내 등을 세 번 가볍게 치시더니 따라오라고 하셨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는 통역을 통해 입문식 때 아무런 체험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스승님은 내 눈과 이마를 여러 차례 만져주시고는 관광하는 법에 대해 알려 주셨다. 그 순간 나는 20년 전 나타났던 노스님이 바로 스승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체험을 스승님께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어로 말씀하셨다.

그 후 내 수행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40여 년의 참선 수행을 내던지고 관음법문에 전념했다. 입문한 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지만 나에게는 내적, 외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인내심이 많아졌으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나는 최고의 지혜를 깨달아서 중생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스승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족하고 행복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16



한 남자가 곤란을 당하자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어찌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명에 못 죽을 겁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저희 집은 가난해서 집이 한 채 밖에 없어요, 큰 집을 살 만한 형편도 못 되는데 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삼촌, 사촌, 처제, 누나, 계다가 우리 애들 서너 명까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오글오글 모여 살아야 합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누나가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다 여동생은 결혼해서도 우리랑 살 작정이랍니다!”

스승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잠시 생각을 하다가 명상을 한 후 지혜안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 있네. 자네 집에 가축을 기르고 있지 않나?” 농부인 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기르고 있지?”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 두 마리에 양 두 마리, 거위 네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열 마리, 병아리 스무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개 두 마리가 있는데요.” 와! 정말 ‘가난’ 하군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동물들을 모두 집안으로 들이게.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농부는 스승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워낙 모르는 게 없고 지혜로운 스승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말에 따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 양, 거위, 닭, 고양이, 개 등 온갖 동물들을 집안에 몰아 넣고는 식구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Kg은 빠져 보였는데, 옷은 걸레처럼 동물의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죽겠습니

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집안이 온통 가축들의 배설물 투성인데다 동물들은 침대, 탁자, 부엌, 화장실 할 것 없이 난장판을 만들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 꼴을 좀 보세요!”



애기를 들은 스승은 왔다갔다하면서 지혜안을 두드리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생각났네. 집에 가면 소 두 마리를 밖으로 끌어내게. 그러면 괜찮아질 걸세!”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는 집으로 달려가 소 두 마리를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제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직도 못 살겠어요! 바닥이 온통 배설물 투성이고 동물들은 하루종일 울어대니,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스승은 다시 왔다갔다하면서 수염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지혜안을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양 두 마리를 밖으로 끌어내면 될 것이네!” 농부는 스승의 말대로 집에 가서 양을 끌어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그는 스승을 찾아와 똑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어요? 스승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스승은 지혜안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럼, 집에 가서 거위들을 내보내게.” 그 남자는 다시 스승이 시킨 대로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또 찾아와 똑같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말했지요. “좋아, 그럼 닭과 병아리들을 쫓아내게.” 남자는 시킨 대로 했지만, 2주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개 두 마리가 고양이하고 매일 싸워댑니다. 개들이 고양이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우리가 잘려고 하면 얼굴로 뛰어듭니다. 정말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라도 쫓아내면 되지 않나!” 제자는 그 말대로 고양이와 개를 쫓아내고는 이젠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한 달이 지나자 그는 꽃과 바나나를 사들고 와서 스승에게 공양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정말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과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최상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애들이 셋이나 있고 남편이 둘이나 있다고, 아! 이건 아니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여러분이 남편과 세 아이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불평한다면, 나중엔 신이 몇 명을 더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놀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엄숙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재미있지요. 가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좋아질 겁니다. 더 많이 명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해봤자 우리 삶은 계속 그대로일 터이니깐요.





자유의지와 신의 뜻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8. 미국 L. A 국제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No. 642



질문: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의지를 신의 뜻에 부합시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맘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됩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머지는 신이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다면, 이런 방식을 선택해 무슨 일이 생기든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바꾸고 신이 그 뜻에 맞춰 주길 바랄 겁니다. 그리고 신은 언제나 그대로 맞춰 주지요.

질문: 하지만 예고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줄까요?

스승님: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예고가 없다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고가 없으면 개인의 의지도 없게 되고 오직 신의 뜻만이 있게 되지요. 아무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바로 신의 뜻을 향해 뛰어오를 것까진 없습니다. 신은 인내심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모두 신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이 원한다고 해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고 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지를 신의 뜻에 맞추고, 또 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신의 뜻이 제게 가장 좋다는 건 저도 압니다.

스승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문: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스승님: 그럼요! 내 말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 중이면 그걸 하면 되고, 누가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주는 거지요. 또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 닥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만족스럽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꾸면 되지요.

질문: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정말 단순하시군요!

스승님: 그래요. 그것도 다 배운 겁니다. (대중 박수) 그래서 어제 내가 여러 사형사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고 했던 것입니다. 앉아서 온 사방에 신의 사랑이나 자비심을 보내는 걸 상상하거나,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낼 테니까요. 하지만 또한 신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나는 이제 애써 두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이 주지 않으면, “좋아요. 그럼 당신이 갖고 계세요”

하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이 내게 주지 않으면, “괜찮아! 내게 필요 없는 것일 테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게 더 간단하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겨우 이 육신을 돌보고 살기 위해 일하거나 투자하는 정도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할 일만 잘 하면 힘도 덜 들고 마음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은 “신이 우주를 주관하도록 하면, 우리 어깨의 무거운 짐이 덜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은 최고의 증인

청하이 무상사/ 1992. 2. 24.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 No. 216)



질문: 스승님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그래요, 우리 스스로 벌을 주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아이들이 나쁜 일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벌주는 것은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벌주는 건 부모들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도 우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속도위반을 했다고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잡아 벌금을 매기는 건 경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감시해 그 행위의 선악에 따라 상이나 벌을 주는 고등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의 법과 내면의 법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자체는 의식인 데 반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물질에 속합니다. 보고 잡기 위해서는



육안과 손이 필요하며, 물질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물질계의 법에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경찰이 붙잡지 않아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목격자로서 결코 자신의 양심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쁜 짓을 저질러도 경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으며, 그 죄책감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떤 에너지를 형성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영체에 달라붙어 있으며, 우리는 이 물질세계를 떠난 후에도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떤 죄들은 물질세계의 형벌로는 다 갚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경찰은 우리를 체포해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양심의 고통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징역을 산다고 그 사람이 되살아나진 않으니까요. 우리 자신이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아이들과 부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미움과 고통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형태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미움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 또한 참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스스로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징역을 살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며, 에너지, 지혜, 영혼, 권능이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편안해지기 위해 이 죄책감을 없앨 방법을 찾아


야 합니다. 이 죄책감은 또 우리를 빛도 하나도 없이 고통만 존재하는 어두운 의식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사실 지옥이라는 것이 달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들의 의식, 양심 외에 지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물질세계와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저주해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그들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악한 사람의 영혼, 마음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지요.

우리는 자신이 행한 악행과 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가 스스로 벌주거나 천국에 갈 상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차원의 질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고등한 자아, 고등한 의식이자 스스로를 심판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지요. 



찾기 쉬운 수행문답

이제 수행자들의 질문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무한한 지혜의 답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earl_wisdom/qa/index2.htm에서 수행자들이 겪는 수많은 의문점들에 대한 스승님의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체험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을 줄 이 웹사이트는 첫 페이지 왼쪽에 범주별 메뉴가 갖춰져 있어 관심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으며, 검색 메뉴로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선택하면 각종 주제들을 완벽하고 상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중 줄타기

첸 싱인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초록이’는 내가 2년째 기르고 있는 아프리카 제비꽃의 이름이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이 식물에게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나와 사무실 동료들은 많은 아프리카 제비꽃 화분들을 갖고 있는데, 초록이는 내가 처음 구한 화분 중 하나였다. 아프리카 제비꽃 중에서 소품종에 속하긴 하지만, 초록이는 처음부터 다른 제비꽃들보다 빨리 자라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며 잎도 무성했다. 무성하고 두툼하기까지 한 잎사귀는 솜털이 보송보송해서 마치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였는데, 동료들은 지나칠 때마다 그 잎사귀를 만지는 걸 좋아했다. 초록이는 내 보물이자 자랑거리였다.

초록이의 잎은 언제나 두껍고 건강했으므로 나는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종종 그 식물과 나의 미묘한 관계를 감지하곤 했는데, 내가 명상을 잘 했거나 선 행사에서 돌아오면 물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초록이는 연달아 새로운 꽃봉오리나 잎사귀를 싹 틔웠다. 반면 내가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덩달아 기운을 잃은 듯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초록이를 특별히 예뻐했다. 그러나 최근 초록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 구부러질 지경이 되고 나서야 나는 그 잎사귀들을 진작에 잘라줬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리카 제비꽃은 잎사귀가 줄기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똑바로 예쁘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초록이의 잎사귀를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 초록이의 균형을 잡아 주다 보니, 놀랍게도 5분의 4나 잘라내야 했다. 초록이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마하게 자르는 내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초록이를 흙에서 파내 비대해진 부분을 제거한 후 물에 넣어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길 기다렸다가 다시 옮겨 심었다.

초록이는 다른 이들의 칭찬과 외적인 풍요를 즐길 때는 좀처럼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내 거울이었다. 겉으로 무성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초록이의 잎사귀는 내가 한쪽에 치우쳐 단편적인 성취감에 우쭐한 나머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무시해 왔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잎사귀가 푸르고 단단하게 자란다고 해서 그 잎들이 모두 한 줄기에만 집중된다면, 그쪽은 불필요하게 비대해져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바르고 아무 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개념, 작은 행위 하나도 전체에 정말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 우리는 세심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일은 내게 고향으로 가는 길이 공중 줄타기와 같음을 일깨워 주었다. 고향에 가고자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자각해야 한다. 

신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다

관음사자

2000년 4월, 스승님은 남아시아의 고대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를 처음 방문하셨다. 수도 콜롬보에서 강연을 마치신 후 스승님이 우리 작업팀 동수들에게 “잘 했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작은 예고로 일하는 대신 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 신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지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

강연 준비는 크게 3가지 일들이 맞물려 있었다. 우선 장소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콜롬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도와줄 현지 입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결국 명상을 통해 계시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알맞은 규모의 장소를 찾아냈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 강연지로는 사실 부적합한 곳이었다. 그러다가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스승님의 안전을 위해 장소를 바꿔야 했는데, 그제야 계시 중 보았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은 위치도 완벽했고 8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800명이란 숫자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본래 스리랑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단순하고 열정적이어서 강연에 3, 4천 명이 모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전의 여파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가기 급급했고 되도록 공공장소들을 피해 다녔다. 이런 상황이라 현지인들은 200명만 와도 대단한 거라고 여겼는데, 강연일 저녁에 약 800명이 온 것이다! 다시 한번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능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중들은 강연 후 여러 차례 통행금지 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곳에서는 비구니의 강연이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스승님을 처음 본 순간 큰 감동을 받았으며, 수십 년 동안 수행해 온 한 노(老)치과의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참석자의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방편법이나 입문을 신청했는데, 예의 치과의사 역시 당연히 신청했다. 그는 나중에 단체명상을 위해 자신의 집을 자진해서 제공했다.


강연 준비의 두 번째 일은 각종 인쇄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질문용지에서부터 수행일지, 포스터까지 모두 번역하고 인쇄해야 했는데, 열성적이고 민첩한 일꾼과 인쇄소 측이 손발이 잘 맞아야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스승님은 이 또한 안배해 주셨다! 아침에 인쇄소에 인쇄할 자료를 갖다 주면 오후에 배달되었다. 어떤 일이든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일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관행에 비추면 이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다음으로는 강연회를 홍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스리랑카 2대 일간지 중 한 곳의 편집장이 전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3일 동안 무료로 광고를 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 가득 스승님의 예전 강연 내용과 대답을 실을 수 있었으며, 강연 당일에는 이 소식이 제 1면에 보도되었다! 한 TV 기자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름을 알리려고 왔습니까?” 하고 탐색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지명도 때문이 아니라 관음법문이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신실하게 설명하자, 이에 감동을 받은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스승님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위의 신문 편집장과 TV 기자는 우리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또 동수도 아니었지만, 내면의 감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강연회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 우리 또한 이를 통해 스승님의 전능하신 힘과 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강연회의 끝은 우리 임무의 반이 끝난 셈이었다. 아직 새 입문자들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는 적당한 연락인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생각지도 않게 이에 걸맞은 인물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데, 그녀는 바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영성을 추구해 온 그녀는 이

제 영적인 삶에 헌신하고자 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본 후, 남편에게 “채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좋지!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지 그래?” 라고 응수했고, 그녀는 그 날부터 채식을 하기 시작했다. 강연날 저녁, 스승님은 강연 도중에 그녀의 성심과 헌신에 대한 표시로 당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주셨다. 우리는 그녀가 새 입문자들을 돌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스승님의 훌륭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스리랑카 강연을 준비하던 과정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다. 오직 미리 안배된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제때 일어나고 나타났다. 스리랑카 내전이 발발하자 우리는 안전문제로 스승님께 강연을 취소하자고 말씀드렸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 사람들은 10년이 넘도록 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지혜와 용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스승님의 큰 원력과 사랑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청하이 무상사/ 1993. 3. 27. 미국 하와이
(원문 영어)

비디오 NO 341

나는 여러분에게 종교적 믿음이나 직업,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리를 알라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아말로 모든 종교 근간에 흐르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험을 통과해 성장하라

청하이 무상사/ 1989. 2. 28.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0

여러분, 살이 좀 찼습니까? (대중: 예!) 그렇군요. 내면이 살이 찌서 부피가 늘었나보군요. (대중 웃음) 수행을 잘할수록 우리는 점점 '살'이 찹니다. 내면의 빛이 커지는 것이 살찌는 것이지요. 육체의 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의 빛이 커지고 두꺼워져야 정말 '살찌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몸을 키워 줄 수는 없지만, 나날이 살찌도록 이 내면의 빛을 키워 줄 순 있어요! (대중 웃음과 박수)

그러나 높은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오히려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 한 줄기 빛일 뿐이지요. 경지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청정해집니다. 그때는 작다는 느낌도 없으며, 우리 마음대로 바로 커지거나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경지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경지의 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좋은 인연이 있어야만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형체가 없는 무소부재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경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악한 육체가 아닙니다. 신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그 자신의 빛의 강도와 밀도를 높게 조정해 한두 개의 모습으로 화현할 것입니다. 비록 빛이나 투명한 육신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신에 가까워진다

그렇지만 그 경지가 최고의 경지는 아닙니다. 최고의 경지에는 오직 평화와 사랑의 힘만 존재합니다. 그를 무엇이냐 말해야 할지, 그가 누구인지 (사실 신은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애로운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부처, 창조주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바세계의 신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 동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신의 품성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신이 주신 내면의 사랑을 발휘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이 사랑을 발휘할수록 신, 부처, 도, 창조주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들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 부처를 대신해 이 행성에 내려온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랑과 박애만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과 가장 가깝고 부처와 가장 친해서 사랑 또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 신이 우리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설령 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천 명, 백만 명이라 해도 그 개개인은 신이 자신만을 돌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

겨 본 적이 있습니까? (몇몇 대중: 예.) (대중 박수) 신은 그렇습니다.



더 큰 성장을 돕기 위한 휴식

이 우주는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아무런 체계나 조직도 없는 것 같지만, 신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 작은 열매나 꽃도 그냥 넘기지 않고 세심히 보살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태양이 떠오르며,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집니다. 추울 때도 신이나 조물주가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휴식이 필요하거나 우주가 쉬어야 할 때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처럼 말이지요.

겨울에 쉽게 피곤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고 보약을 먹으면서 충분한 체력을 보강합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무는 시들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서 그래야 다음에 새 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주공궁(成住壞空)하는 모든 것, 나고 죽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텐트 친 곳은 이제 막 파랗게 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감을 따러 갔던 곳을 기억하나요? 그때는 아직 파랗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 푸르게 변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나무가 오래된 죽은 잎사귀들을 정리하고, 석 달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쉴 수 있는 겁니다. (대중 웃음) “달달달달……” 하는 진동력을 내보내다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요.

어떤 식물들은 너무 물을 많이 줘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선인장 같은 사막 식물들은 방에서 너무 잘 돌보면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우 건조하게 놔두면 걸으려는 시든 것처럼 보여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수행의 시금석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들에게 항상 모든 일이 평탄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순조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 수행이나 지혜, 신체에 이롭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진보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타락해 태만해지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물질적 즐거움에 빠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일 뿐 영혼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 스승이나 동수, 외부의 상황에 의해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일이 정말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넘어가면 급속도로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수행이나 사업, 일상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우리에게 이롭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후엔 우리 영성이 발전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테니까요. 아이를 낳을 때처럼 말이지요. 아주 큰 산고를 겪어야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 동수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좀더 독립적으로 노력해야만 돌파할 수 있지요.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진 않습니다.

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한번에 거저 생긴 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스승을 찾아다녔으며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야단치면 몹시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백만 배나 더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비할 게 아니죠. 여러분은 스승에게 야단을 맞거나 동수들의 시험을 받으면 괴롭다고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시험할 때는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어쩔 도리가 없으며, 감히 화도 내지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할까 두려우니까요. 또 밖에서 사업을 할 때 손님들이 무례하고 모마땅해도 꼭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말도 못합니다. (대중 웃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비교해 보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모함해도 우리가 그것을 불보살이나 신이 시험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고된 시험은 훌륭한 수행자를 만든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 모든 것이 매우 수고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옷의 경우, 본래부터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햇볕을 받고 자란 목화에서 꽃을 따내 그것을 선별해 껍질을 벗긴 후 기계나 손으로 꼭 눌러 펼쳤다가 다시 물에 꿰인 다음 마지막으로 기계공정을 거쳐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아주 많은 노고가 필요하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행’이 고생스러웠는지 날마다 울면서 하소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강연을 그렇게 많이 들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경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렌즈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열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유리 원료에 높은 열을 가해 액체로 녹인 다음, 다시 틀에 넣어 식혀야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도 윤을 내고 시력을 검사한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꼭 맞는 안경이 탄생합니다. 정말 중생의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안경과 같은 작은 물건도 이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성인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다니, 여러분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게다가 스승이 한두 마디 꾸짖는다고 화를 내니! 우리는 인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동수나 가족, 스승,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야단맞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정작 수천 수백 만의 중생을 제도할 때는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중생은 각기 개성이 다른데다 어떤 중생은 흉악하기까지 한테 말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 우리는 자신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스승이 가르칠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진정한 법맥의 전승

그래서 지금까지도 티베트의 밀라레빠 존자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는 스승을 따르면서 7년 동안 매일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스승에게 법을 청하면서 스승이 혼란을 그만둘까 두려워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이 발로 차고 때리고 꾸짖으며 그를 ‘부당하게’ 대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의 모범으로서 오래도록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맥을 전승해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밀라레빠 존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인욕 정신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를 ‘초인(超人)’ 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입니다.

밀라레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과 영웅과 같은 많은 보통 사람들 역시 이름을 날리기까지 많은 시험과 훈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관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 왕실의 전통에 의하면 왕위 상속자는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리고 야단을 칩니다. 상관들은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눈이 오는데도 옷을 벗고 밖에 나가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요. “나는 영국의 왕자야!”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들은 말할 겁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귀관의 어머니가 내게 자네 좀 많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네.”

영국의 왕자나 고관들의 자녀들은 일부러 그런 사관학교에 보내지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밖으로 보내 남에게 훈련시키는 편이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런 사관학교는 훈련이 매우 고되고 엄격하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 아이들은 결코 고생이나 불편을 겪어보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바로 방탕한 생활에 빠져 물질적 즐거움이나 즐기게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수행자는 역경을 용감히 감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대신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열어 주고 인내심과 겸손을 키워 줄 그런 본보기가 담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런 위인들처럼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더 훈련시키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아도 오불을 묵묵히 외우면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대중 웃음)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황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야단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숭배하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대신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 불보살이 우리를 선택할지 모르니까요. 중생을 도울 깨달은 스승이 되는 것은 선거와 다릅니다. 광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속여 우리를 뽑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이름을 널리 알려 당선되는 그런 류가 아닙니다! 불보살에겐 광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망원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아, 저 사람이 좋겠군! 훌륭해, 아주 훌륭한 걸!” 하면, 여러분이 선택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단지 한두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 선택될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기엔 충분한 복이지요. (대중 웃음) 또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제도하기 위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임무가 막중해집니다. 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사람을 제도하는 일에 그의 5대 천도도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이자가 아주 높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면, 자신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성숙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마음도 더욱 열려야 하며, 이

세상이 커다란 꿈과 같은 환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무엇에 집착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설명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조만간 우리는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왕도 가고 쓰레기 줍는 사람도 가야 하죠. 이곳에 영원히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탐탁지 않은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수록 ‘인내’라는 생각이 적어질 것이며 자신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지를 보고 신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경지를 측정해선 안 됩니다. (대중 박수)



어디서나 신의 복음을 전하라

청하이 무상사/ 1989. 10. 2.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 No. 100

우리는 각자 신의 사랑과 인내, 자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서로를 늘 일깨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거리, 식당, 호텔, 시장 등 어디에서나 그렇게 해야 하며,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남들도 일깨워야 합니다.



선 행사를 통한 수확과 성장

씨아오디 사저/ 중국

2000년 5월에 열린 한국 국제 선육 행사는 나의 첫번째 선행 사이기도 했다. 내가 참석하기로 마음먹자, 그날부터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해 내 마음을 흔들었으며 그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스승님의 안배였다. 비록 스승님을 뵈 수 있도록 정화되는 업의 빠른 진행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와중에 나는 매일 나 자신이 진보하는 것을 느꼈으며, 결국에는 선에도 순조롭게도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 여행단들과 나는 공항에서 사형사저들을 만나자 겨우 마음이 놓였다. 이젠 장애물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그제야 우리의 긴장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것이다.

영동 센터에 도착한 첫날, 나의 나쁜 습관이 불거져 나와 문제를 일으켰다. 나는 작업팀의 한 사형에게 일상물품들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사형이 일러 주자,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현신적인 동수들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작업팀 동수들은 대중들을 위해 많은 애를 쓰며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고 동수들을 맞이하고 의식주 전반에 걸친 동수들의 요구를 안배하고 돌봤다. 그런데 나는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한쪽에서 불평이나 하다니!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다. 내 습관을 바로 바꿔 일치 단결된 이 유쾌한 가족들과 함께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 우울해졌다.

나중에 나는 오랜 갈망이었던 스승님을 뵈게 되었다. 하지만 스승님이 나를 그냥 지나치시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으며, 마치 스승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리 떠난 듯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우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는 두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승님을 응시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을 훔치려 손을 들 때 보니 주위 모든 동수들도 나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자


비로운 스승님은 우리에게 농담을 건네시며 우리를 놀리기도 하셨다. 나는 점차적으로 스승님이 그렇게 머나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선 행사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명상 시간에 천둥소리와 함께 세찬 빗줄기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홀연히 내 마음이 열리면서 만물 가득히 퍼져 그것을 감싸안은 스승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스승님이 줄곧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가 스스로 쳐놓은 벽을 뛰어넘어 나오길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명상 홀을 나서자 일체의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보였다.

나중에 스승님으로부터 가피물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가피력이 들어 있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에게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우리를 데리고 왔던 가이드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때만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굳어 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달라졌으니 말이다! 그 역시 우리 여행단의 가이드를 맡으면서 많은 체험을 했다. 한 사저는 그에게 스승님의 힘은 실로 불가사의해서 닿는 것마다 모두 변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선 행사를 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지금 와서 생

각해 보면 마치 천국에서 보낸 한때였다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지금 더
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시 스승님은 내가 원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이다! 선 행사에서 돌아와 나는 매일 스승님의 축복을 소화시키면서 이렇
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나는 매일 스승님의 축복을 소화시키면
서 스승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

을 돌보지 않는 스승님의 사랑과 봉사,
무조건적인 헌신의 정신을 배우기 시작
했다.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
력하겠습니다! 

영혼의 고양

창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712 동물의 영상

2001. 6. 5.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영상

713 사랑은 스승이다

2001. 6. 5.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영상

716 신을 사랑하는 자연스런 방식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영상

717 좋은 이웃의 미덕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영상

<영어+터키어 통역 + 핀란드어 자막>

665A 마음의 평화

1999. 11. 20. 터키 이스탄불 강연

창하이 무상사 가곡 창작집 (DVD, CD)

창하이 무상사에 의해 작곡된 이 수행가곡 모음집에는
비범한 의미를 전달하는 작곡가의 독특한 능력과 아름
다운 예술적 재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승
님은 어울락, 중국, 서양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한데 모
아 아름답게 조율한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작곡하셨습
니다. 천상의 영감을 받아 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쓰여졌기에 한 곡씩 감상할 때마다 그 시어와 음률 속
에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
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요청에 의해 이제 영광스럽게
도 이 진귀한 천상의 음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935 / 팩스: (886) 2-87870873

E-mail :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포모사에서만 주문)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잠자는 미녀

게리 니콜라스 사형/ 일본 도쿄
(원문 영어)

여러분은 요정 이야기를 믿는가? 나는 입문 전에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삶이 바로 동화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내
이야기는 ‘잠자는 미녀’이다.



내 이야기는 네덜란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해마다 스코틀랜드 고
지(일명-하이랜드)와 오크니제도의 역사, 문화 및 야생생물
에 대한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학생들을 인솔
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곤 했다. 그런 학생과 보호자들
을 이끌고 다니던 중, 1999년 6월 5일에는 에든버러에
들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곳에서는 그 날 칭하이 무상
사의 대중 강연이 있었다.

나는 웃음 띤 얼굴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던 사람
들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내게도 전단지를 한 부
주었지만 거절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네덜란드 길
더를 영국 파운드로 환전해야 했던 나는 환율이 가장 높
은 곳을 찾고 있는 중이라 이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
가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몇 번 지나쳐 오가는 동안 어찌
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고 서 있을 때 다시 한 여성이 내
손에 전단지를 쥐어 주었다. 웬지 모르게 나는 길을 건
너고도 전단지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쳐다봤는데,
전단지 앞면의 사진에 마음이 끌려 사진 속의 여인에 대
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길을 걷는 동안 꼼꼼하
게 전단지 앞뒷면을 다 읽어보니, 전단지 맨 밑에 “이
전단지를 갖고 계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쓰여 있
어서 계속 갖고 다녔다.

나는 그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에 참석할 수 없었

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그 전단지를 갖고 다니
며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 네덜란드에 돌아온 후, 아내
에게 보여 줬더니 놀랍게도 그녀 역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네덜란드 연락인에게 전화를 걸고 관음
법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암스테르담 센터까지 두 시
간 반을 운전해서 찾아갔다. 우리는 평생 채식할 수
있을지 우선 3개월 동안 시험해 보기로 결정하곤 견본
책자와 비디오 테이프,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
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채식을 하는 건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지만,
명상이 문제였다. 예전에도 명상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
었는데, 15분간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서 2시간 반은 어
림도 없을 것 같았다. 1999년 10월에 우리는 암스테르
담에서 방편법을 배웠다. 그러자 갑자기 명상하기가 쉬
워져 30분 명상도 거뜬했다.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루 속히 입문하기로 결정하자 연
락인은 스승님이 11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강연하
실 예정인데 거기에 가면 입문할 수 있다고 알려 줬다.

터키 이스탄불은 매우 멀게 느껴졌으며, 큰돈이 들
것 같았다. 아님 게 아니라 이스탄불행 항공을 알아봤더
니 운임이 엄청나게 비쌌다. 거의 포기 직전이었던 나는
문득 부근의 터키 여행사를 생각해 내고는 그곳을 찾아
갔다. 거기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표
를 구할 수 있었다. 비행기 표와 3성급 호텔에서의 2박
이 전부 합쳐 1인당 150달러도 되지 않았다! 같은 비행

기를 땀던 다른 사람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비행기 표값만 해도 우리 전체 여행경비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란 걸 알았지만,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문식이 우리 내면의 ‘잠자는 미녀’를 깨웠던 것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신의 왕국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만 깨어날 수 있었다. 입문식은 무료였지만, 그것은 내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멋진 선물이었으며, 이제는 스코틀랜드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던 동수들이 왜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입문한 지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킬 특별한 성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마친 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어디 갈 것인지 난 알고 있어.” 아내가 어디를 갈 생각인지 물어 내가 포모사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 역시 몹시 놀랐다. 우리는 포모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 성탄절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가 반드시 포모사를 가야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날로 아내는 포모사행 비행기편을 알아봤지만, 모두 예약되어 어디서도 표를 구할 수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나는 계속 우리가 포모사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캐세이 트래블’이란 여행사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포모사행 비행기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하는 동안, 아내와 나는 ‘스승님, 이번 여행이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꼭 가야한다면,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잠시 후 다시 연결된 직원이 말했다. “표가 2장 있군요.” 그건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표였다!

직원이 성탄절에는 포모사 호텔들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나는 호텔 예약은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비행기를 예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여행사 직원은 통화를 끝내기 직전 이렇게 얘기했다. “손님, 우리 동료들은 당신이 포모

사행 비행기 표 2장을 구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포모사행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어서 나는 타이베이 센터에 전화해 우리가 포모사를 방문할 계획인데 숙소를 좀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그 다음부터 여행은 포모사 동수들을 통해 저절로 안배되었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스승님의 행적을 찾아다녔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스승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승님은 아름다운 시후 센터에, 그리고 포모사 동수들의 마음 속에 살아 계셨다. 우리는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내면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으며 매순간 뜻깊은 경험을 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스승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성탄선물이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 스승의 힘에 대한 완전한 신심으로 행동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포모사에서 12일간 머물렀는데, 포모사를 떠날 무렵에는 아시아에 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직장은 2년마다 한번씩 전근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해는 내가 신청하는 해가 아니어서 전근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나는 전근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해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너무 많은 교사들을 고용해 두 사람의 전근 지원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기대에 차서 지원했지만, 교장은 한 마디로 거절했다. “당신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전근을 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으니,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 달라고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몇 주가 지나 전근신청 마감일이 되었다. 놀랍게도 본격적인 전근이 발표되기 1주일 전에 교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전근신청을 허락했다. 나는 신청서의 전근 희망지에 “아시아 어디든지” 라고 기입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에 달린 문제였다. 학교측에서는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었고 나는 그걸 수용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야 했다.

다시 우리는 스승님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

신의 길을 안내해 달라고 기도했다. 1주일 후 결정이 났다. 포모사를 떠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일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우리는 스승님의 안내로 이곳 일본으로 오게 된 것에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곳 센터는 활동이 많아 우리는 봉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흥미로웠다. 그건 우리가 바랬던, 아니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다.

스승님이 우리 내면의 잠자는 미녀를 깨우기만 하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기적처럼 가능하게 된다.

후기: 이 이야기는 전에 도쿄 센터의 비디오 강연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발표가 끝난 후 센터의 두 사제가 2년 전 그날 자신들이 스코틀랜드에서 내가 받았던 스승님의 강연 안내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줬었다고 내게 얘기했다. 그 중 한 사제는 내가 전단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내 손에 전단지를 쥐어준 사제는 그 녀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제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여행을 했다. 내가 다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은 그 전단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스승님의 안내임에 틀림 없다. 나는 아직도 축복이 담긴 그 전단지를 간직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의 관점

칭하이 무상사/ 1993. 3. 27. 미국 하와이
(원문 영어)

비디오 No. 341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다를까요?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보다 이완되어 있고 행복하며 또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그는 그 위대한 힘이 만물을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지구를 이처럼 생기 넘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생활을 한층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상사(無上師)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깨워 활용할 때 세세생생 쌓인 부정적이고 불행한 기억과 습관의 흔적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관음법문은 가장 귀한 보물

칭하이 무상사/ 1999. 1. 1. 미국 캘리포니아 LA
(원문 영어)

비디오 No. 643

이 관음법문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잊거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도, 관공을 좀 하고 나서 다시 관음을 하면 모든 해결책이 바로 떠올라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신의 훌륭한 도구

평친 사저/ 영국 런던 (원문 영어)

올해 3월 어느 날 아침, 나는 반쯤은 자고 반쯤은 명상하다 일어나 한 사저와 오후에 그녀의 집에서 같이 명상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는 매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일종의 내 직업병이었다. 아침을 먹기엔 좀 이른 시간이었어서 다시 명상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엔 계속할 수 없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빅토리아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매표소 앞에 섰다. 런던을 떠나 영국 각지로 가는 버스들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시간표를 계속 훑어보던 나는 '노팅엄'에 눈길이 멈췄다. 즉시 매표소에서 표를 산 후 마땅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저와의 명상 약속을 취소했다.

3시간이 걸려 노팅엄에 도착했지만, 내가 왜 이 볼 것도 없는 도시에 왔는지 모른 채 나는 거리를 배회했다. 비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와 나는 무작정 가게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두 명의 중국인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들은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를 사는 걸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쇼핑을 마친 후에는 자신들의 숙소로 나를 초대했다.

숙소에 도착하자 그 중 한 사람이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이제 만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다시 도움을 청하게 되자 걱정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했다. 그는 다음 날 런던에서 그 변호사를 만나야 했는데,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 못할까 걱정했다. 또 도와줄 사람도 아직 찾지 못

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국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매표소가 문 닫을 시간이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노팅엄 터미널에 도착해 가카스로 마지막 차표를 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빅토리아 터미널에서 그 중국인을 만나 그를 데리고 하루 종일 볼일을 보았다. 저녁에 그를 배웅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종교가 있나요?” 하고 묻자 그는 카톨릭 신자라고 대답했다. “그럼,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나요?” 하고 다시 묻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예, 언제나 기도하지요. 6개월 전 고향을 떠난 이후로 언제나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건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전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입문 후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전화조차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연결은 말할 나위 없이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항상 내면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신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두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시공도 없고 제약이나 한계도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 우리는 스승님과 하나가 되고 스승님과 함께 일하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수술 중 스승님과 함께 한 여행

류 사저/ 중국

최근 몇 달 동안 몸에 이상을 느꼈던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내가 자궁암에 걸린 지 오래되어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결과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낼 수 없기도 했지만, 병원의 고통스런 자장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적으로 그저 스승님이 나를 데려가 주시길 기도했다. 하지만 동수들은 이 힘든 시기에 물심 양면으로 나를 도와 주었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밤낮으로 교대로 돌봐 주었다. 또 다른 동수들은 나 대신 일상생활을 도와주어 가족과 채소밭을 돌봤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동수들의 이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입원 후에도 동수들은 내 침대 주위에서 밤낮으로 기도 명상을 해 주었다. 멀리 있던 동수들도 “신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영원토록 스승님이 돌보시길!” 하면서 기도해 주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나는 오전 8시 30분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6명의 동수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며 수술이 잘 끝나길 기다렸다.

수술대에 올라간 나는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오직 스승님의 명호만 계속 외었다. 마취주사를 맞고 2분 가량 지났을 때, 감각이 있냐고 마취의가 묻기에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대답했다. 내 몸을 여러 군데 바늘로 찌르는

데도 내가 아무런 통증도 못 느끼자, 이를 지켜보던 수술진은 몹시 놀라는 듯 했다. 계속해서 나를 찔러보던 마취의는 “아마도 이 환자는 특이한 능력이 있나봐” 하고 중얼거렸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의사는 내 목에 걸려 있던 스승님의 사진을 계속 집어 올려 쳐다보았다. 수술 집도의 또한 “이 수술은 아주 순조로울 것 같은 걸” 하고 얘기했다. 이런 수술에서는 대개 마취주사를 맞은 후 15분 정도가 지나야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수술이 진행되자 화신 스승님이 내 곁에 나타나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내 이마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하늘을 날아올랐다. 도중에 지나친 아름다운 경지에서는 가지각색의 생생한 수많은 꽃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어서 스승님은 나를 넓은 홀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나와 친한 동수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매우 젊고 밝게 빛나며 지혜로 충만해 보였다. 나 또한 노래를 부르거나 수수께끼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 틈에 끼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문을 지키고 있던 젊은 사형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서야 나갈 수 있었다.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 모두가 열렬히 박수를 쳐주었다. 그곳에서 나오자 스승님은 나를 천수관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천수관음에 가까이 갔을 때, 천수관음의 손이 하나씩 천천히 뻗어 나

오더니 점점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
했다. 천수관음은 늘 중생을 구제하느라 여
념이 없었으며, 나는 천수관음이 내게 주신
무한한 축복에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때 각양각색의 옷을 입으신 화신 스승님
이 나타나셨다. 나는 스승님이 우주 곳곳에서 중
생들을 위해 진리의 법을 펴시며 그들의 고통
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승님께
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량없는 빛을 보며 나는 형
용할 수 없는 감동과 스승님에 대한 무한한 존
경과 사랑을 느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끊임
없이 울려 퍼지더니 이어서 이전에는 결코 들
어보지 못했던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악이 주
위를 맴돌았다. 이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
는 동안 나는 하얀 그물 침대에 누워 광활하고
밝은 우주를 떠돌며 해와 달, 별, 온갖 아름
다운 행성들을 볼 수 있었다. 내 밑으로는 아름
답고 꿈결같은 광경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다.

이 황홀한 여행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모
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깨어
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하는 사
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가 가까스
로 눈을 뜨자 동수들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깨어났군요! 이젠 안심이에요.” 내가 눈
을 뜨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자리
를 뜰 수 없었다. 수술은 4시간만에 끝났으며,
일찌감치 회복실로 온 나는 계속 평온하게 잠
든 상태였고 날이 밝도록 한 사저가 줄곧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관
광과 관음을 했다. 그리고 7, 8시쯤에는 침대
에서 일어나 아무런 불편 없이 제대로 걸어 혼
자서 화장실을 갔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나와 같은
때, 혹은 하루 먼저 수술을 했지만, 수술
한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의 부축

을 받아 겨우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통스
런 나머지 계속 신음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쯤 기대어 웃고 있는 나를 보며 내가 무슨
신기한 수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방
금 수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나는 동
물성 성분이 들어간 보약도 일체 거부해 먹지 않
았는데도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회복이 빨랐
던 것이다.

다른 환자들보다 약을 덜 먹는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각별한 사랑과 축복, 그리고 동수
들의 염려와 보살핌 덕분에 나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불찬을 틀어놓
았는데,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모두 편안하니 듣
기 좋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식을 하고 있을
뿐이며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
운 부담을 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비심을
내어 채식을 하고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
면 불보살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이 인과의
법칙에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
자 몇몇 환자들은 내 말에 동의를 표했다. 그
리고 내가 채식만 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채식을
하고 싶어했다.

수술한지 4일째 되던 날, 내가 퇴원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의사는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환자중에서 가장 문제 환자예요” 하
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기적들이 신과 스승
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승님의 은
혜는 평생동안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내겐 오직 신이 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수
행하고 스승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 스승
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길뿐이다!





미국 뉴저지 소식

노숙자에게 사랑의 선물을

2001년 9월 11일 재난구호의 한 활동으로 스승님은 우리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세계무역센터 희생자들을 방문해 위로해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꽃과 선물을 준비해 여러 병원의 환자들을 방문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 11월이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우리에게 아직 건강보조 음식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11월 19일 우리는 이 선물을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뉴저지 뉴어크 시의 노숙자 수용소인 '굿윌 앤 미션'에 전달했다. 수용소 직원들은 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이곳의 추수감사절 만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GOODWILL HOME & MISSIONS, INC.
79 University Avenue - Newark, NJ 07102 - (973) 621-9580
New York, New York and not a tax-exempt organization
Rev. Lee D. Schenckel, Executive Director/Pastor

RECEIPT

Name: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Taid. Association
Address: 92 Mountain Rd., Hightstown, NJ 08520

Date: Nov. 19, 2001 Received by: William Adams
CITY AND HOME ITEMS DONATED: 2 boxes of health food bars, drinks, cereals

Value as set by donor: \$ 400 SAVE FOR TAX PURPOSES
No goods or services have been given in exchange for this donation.

Thank you for your "gift-in-kind" donation to Goodwill Home & Missions. We appreciate your interest in our non-profit mission. Your donation helps us to help others.

We have indicated the items which Goodwill has receive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you, the donor, to set a fair value to this receipt. Any verification for value which is required by the IRS is your responsibility. Please attach an invoice to this receipt and use for tax purposes.

Your partnership in the outreach of Goodwill gives others hope and help in difficult circumstances. On behalf of those we serve, thank you!

Signature: [Signature]
Rev. Lee D. Schenckel
Executive Director/Pastor

Goodwill HOME & MISSIONS MEMBER
ECPA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최근 미국 9.11 재난 구조활동 기부금 영수증 (자세한 내용은 127호 참고)

적십자 버지니아
알링턴 지부 10,000 달러

뉴욕 적십자사 10,000 달러

American Red Cross
in Greater New York

October 5, 2001

Mr. Shih-Ching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1300 Livingston Avenue
Brooklyn, NY 11229

Dear Mr. Shih-Ching: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ntribution of \$10,000.00 from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We deeply appreciate your organization's generous support.

Please be assured that the contribution will be put to good use. For the first three days of the disaster response, we were responding to immediate and urgent needs: feeding the most vulnerable, sheltering the homeless, providing medical care, and providing disaster relief supplies.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scope of this disaster, we have now begun a new gift program to put funds directly to the hands of the victims' families, providing cash gifts to cover immediate living expenses such as food, clothing, shelter, and transportation, and to pay for funeral expenses, funeral and related expenses and other long-term needs and emergency expenses.

Again,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e ongoing global effort of support, which assures that the Red Cross will always be there to respond when we are needed.

Cordell
Robert M. Boudin, Jr.
Chief Executive Officer

In accordance with Internal Revenue Service regulations, no cash or goods or services were provided in exchange for this contribution. Please retain this receipt as your receipt for this contribution.

뉴욕 소방서 18,000 달러

The City of New York
FIRE DEPARTMENT
Bureau of Fire Prevention
October 26, 2001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1300 Livingsto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29

Dear Mr. Shih-Ching:

The Fire Department acknowledges receipt of \$18,000.00 in gift certificates for \$10 each to the City of New York from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n October 12, 2001. The gift certificates have a total value of \$18,000.00 and as documented they will be distributed to children of FDNY members. Please note that this donation may be tax 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able by law.

We are grateful for your donation and support during this tragic time.

Thomas F. Spink
John Reed
Fire Commissioner

워싱턴 DC 구세군 1,000달러

THE SALVATION ARMY
(Incorporated in 1905)
NATIONAL HEADQUARTERS
417 Wilson Avenue
Alexandria, VA 22304
September 13, 2001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irginia
4210 Fortney Lane, #124
Annandale, VA 22003

RE: Donation

Dear Mr. Vincent Nguyen:

The Salvation Army is grateful for your generous donation of \$1,000 (check #1133) which will help continue our work with providing relief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uesday's tragedy.

Thank you for stopping by our National Headquarters. I was glad to meet all of you.

Cordell Thomas Lewis
National Chief Secretary

TCL:awb

Please retain this information for your tax files
The Salvation Army did not provide any goods or services in consideration for this contribution

American Red Cross
Arlington County Chapter
November 13, 2001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irginia
4210 Fortney Lane, #124
Annandale, VA 22003

Dear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The chapter of the American Red Cross in Arlington County is very grateful for the \$10,000 donation from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irginia. Your contribution is being used to help the victims of the September 11th disaster and to help the victims of the disaster who are still suffering.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The Arlington Red Cross also needs your Chapter to have more funds to help the victims of the disaster. Your Chapter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isaster response.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Our staff and volunteers will continue to work to help the victims of the disaster.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Your financial support continues to be a long-standing promise to help the victims of the disaster.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Thank you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in this tragedy.

Thomas Lewis
Chief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Officer

Please retain this information for your tax files
The American Red Cross did not provide any goods or services in consideration for this contribution

4419 Arlington Boulevard, Arlington, Virginia 22204 Phone (703) 527-1278
www.arlingtonredcross.org/html/eng

포모사 소식



중추절에 온정을 나누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올 중추절에 타이난과 창화, 까오슝, 핑둥 등지의 빈민 가정과 노인, 재소자들을 방문했다. 중추절 전 날, 까오핑 센터는 동수들이 사랑으로 준비한 월병 180상자를 완루안 향 신즈 마을 이장 사무실 측에 전달했다. 동수들과 왕 이장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손수 월병을 전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표했다. 왕 이장은 또한 수년 간 신즈 마을에 대한 우리 협회의 관심과 도움에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핑둥 완루안 향 신즈 마을의 이장이 주민들을 대표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보낸 중추절 월병 선물을 받다



감사장



태풍 기간 동안 수많은 인력과 장비, 구호품 지원과 태풍 복구작업 등을 진행한 구조활동에 대한 공로로 타이베이 향지사 수 청창 씨와 타이베이 시장 마 잉조우 씨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장을 수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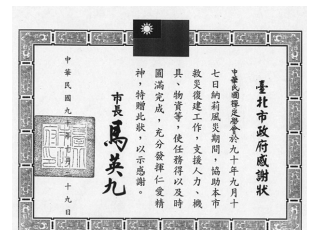


표 1: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 장 소 | 일 자 | 활 동 내 역 | 금 액 | |
|-------|---------------|-----------------------------------------------------------------------------------------------|------------|---|
| 창 화 | 2001. 9. 6. | 창화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영성 서적 기증 | 4,380 | A |
| 타 이 난 | 2001. 9. 24. | 타이난 청소년 보호감호소에서 영성 교양 세미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재소자들에게 중추절 선물 전달 | 2,315 | B |
| 까 오 숭 | 2001. 9. 24. | 까오숭 청소년 보호감호소에서 영성 교양 세미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재소자들에게 중추절 선물 전달 | 6,500 | C |
| 창 화 | 2001. 9. 25. | 창화 기독교 회락 보육원과 자애 장애인어린이집, 창화 가정 돕기 센터 방문, 어린이들에게 중추절 선물 | 8,400 | D |
| 창 화 | 2001. 9. 26. | 창화 청소년 보호감호소에서 영성 교양 세미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재소자들에게 중추절 선물 전달 | 6,760 | E |
| 핑 톱 | 2001. 9. 26. | 원루안 향 신즈 마을 방문, 노인들에게 중추절 선물 | 11,455 | F |
| 창 화 | 2001. 9. 30. | 따춘 향 따룬 마을 방문, 중추절 선물과 성금 전달 | 4,800 | G |
| 타 이 난 | 2001. 10. 6. |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활동 (자원봉사) 환경보호와 해변 정화 활동에 대한 공로로 타이난 시정부로부터 표창장 수상 | 0 | H |
| 타이베이 | 2001. 10. 8. | 타이베이 룡산 중학교 야간 조명시설 지원 (2001년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 30,000 | I |
| 창 화 | 2001. 10. 12. | 창화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영성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활동 개최 (자원봉사) | 0 | |
| 타 이 난 | 2001. 10. 23. | 타이난 망터 교도소에서 영성 세미나 개최, 명상법 지도 (자원봉사) | 0 | |
| 타 이 난 | 2001. 10. 31. | 타이난 교도소에서 영성 세미나 개최, 명상법 지도 (자원봉사) | 0 | |
| 핑 톱 | 2001. 10. 31. | 대만 전력공사 제3 핵발전소의 초청으로 홍범 강연, 연구원들에게 명상법 지도 (자원봉사) | 0 | |
| 합 계 | | | NT\$74,610 | |

표 2: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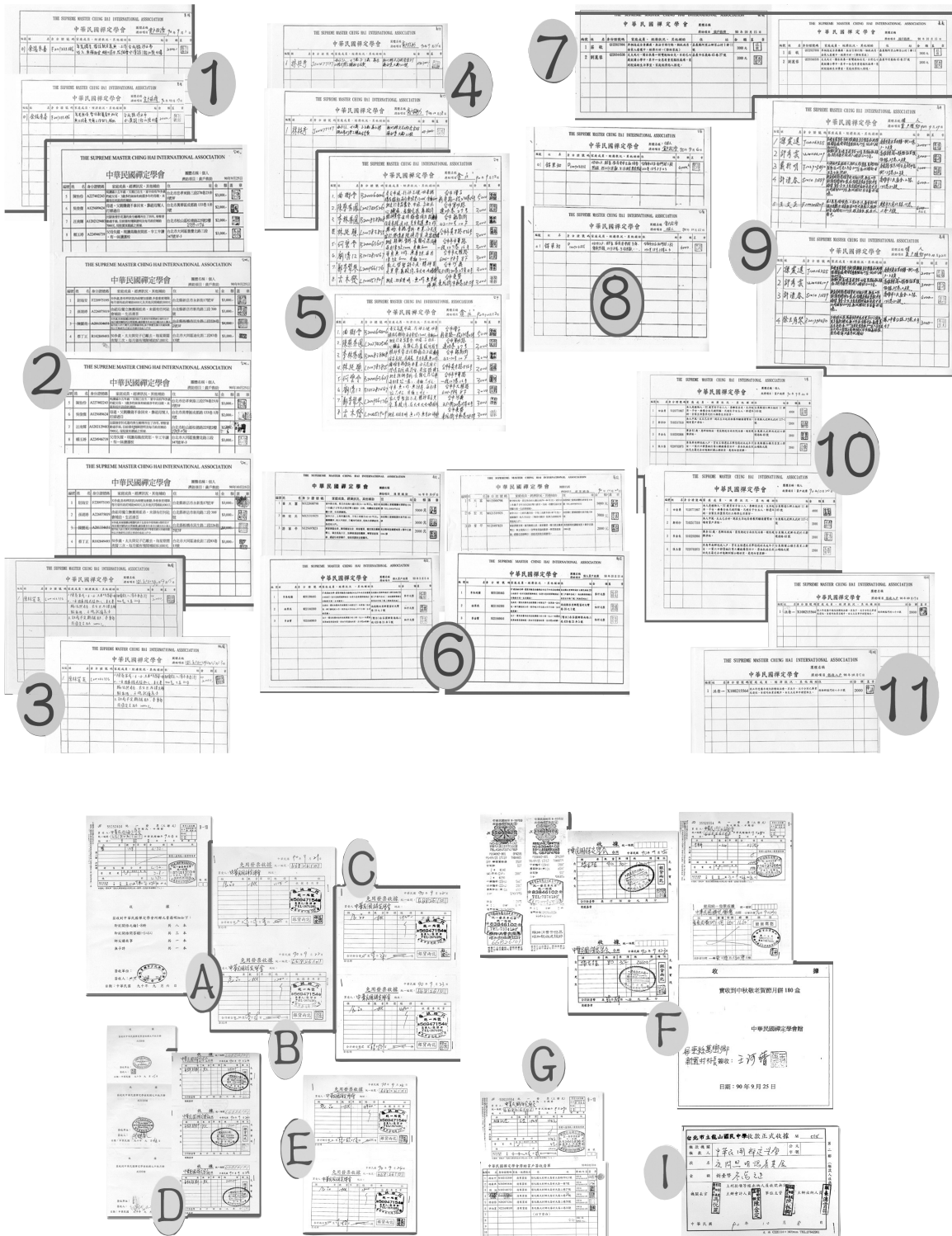
| | 2001년 9월 | | 2001년 10월 | | |
|-------|----------|---------|-----------|-------------|-----|
| 지 역 | 가구 수 | 금 액 | 가구 수 | 금 액 | 부 록 |
| 지 룡 | 1 | 2,000 | 1 | 2,000 | 1 |
| 타이베이 | 7 | 19,000 | 7 | 19,000 | 2 |
| 타 오 웬 | 1 | 2,000 | 1 | 2,000 | 3 |
| 신 쭈 | 1 | 3,000 | 1 | 3,000 | 4 |
| 타 이 충 | 8 | 26,000 | 8 | 26,000 | 5 |
| 난 토 우 | 6 | 23,000 | 6 | 23,000 | 6 |
| 지 아 이 | 2 | 5,000 | 2 | 5,000 | 7 |
| 타 이 난 | 1 | 4,000 | 1 | 4,000 | 8 |
| 까 오 핑 | 4 | 14,000 | 4 | 12,000 | 9 |
| 타 이 톱 | 4 | 10,000 | 4 | 10,000 | 10 |
| 평 후 | 1 | 2,000 | 1 | 2,000 | 11 |
| 월별 소계 | 36 | 110,000 | 36 | 108,000 | |
| 총 계 | | | | NT\$218,000 | |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1년 9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지출금액은 총 NT\$ 292,610 (미화 약 8,481.45 달러)에 이른다.



환경보호와 해변 정화 활동에 대한 공로로 타이난 시정부로부터 표창장 수상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영수증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 | |
|------------|---------------------------|-------------------------------------------------------------------|
| ★ 앙골라 | 센터 | luandacentre@yahoo.com |
| ★ 베닌 | 센터 | 229-383-982 smbenin@yahoo.fr |
| ★ 카메룬 | 센터 | 237-865026 smcameroon@hotmail.com |
| ★ 가나 | 센터 |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 ★ 케냐 | 센터 |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 타운 센터 |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
| | 더반 센터 |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
| 요하네스버그 | Mr. Gerhard Vosloo |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
| | Mr. Gilbert Kamgain |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 | Mrs. Tracey Ho | 27-11-6402085 sajhbcntr@pchome.com.tw |
| ★ 토고 | 팔리메 센터 | 228 410 948 |
| | 로메 센터 | 228 222864 smtogo@yahoo.com |
| | Mr. David Chine | 228 215551 |
| ★ 우간다 | 캄팔라 |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kampalacntr@yahoo.com |
| ★ 모리셔스 | 포르투이스 |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meloo.com |
| | Ms. Josiane Chan She Ping | 230-242-0462 smchmauritiu@yahoo.com |

아메리카

| | | |
|---------|------------------------------|--------------------------------------------------------------------------|
|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 아이레스 |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innermelody@vianw.com.ar |
| 산타 크루즈 | Mrs. Adalina da graca Munhoz |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
| 트리니다드 | Mr. Wu Chao Shien | 591-4625964 |
| ★ 브라질 | 벨렘 | Mr. Wei Cheng Wu 55-91-223-9414 |
| | 레시페 |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
| | 상 파울루 | 센터 55-11-5579-1180/3884-3155 |
| | 연락인 사무실 |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 ★ 칠레 | 라세레나 |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laserenacntr@hotmail.com |
| | 산티아고 |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
| | 연락인 사무실 | 56-2-6389229 |
| ★ 콜롬비아 | 보고타 |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 ★ 코스타리카 | 산호세 | 센터 506-2200-753 |
| | Ms. Laura Chen | 506-363-2748 laurachenr@hotmail.com |
|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 멕시코 | 멕시코 |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
| | 멕시코DF | 센터 52-55-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
| | 멕시코 주 |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sinfon.net.mx |

| | | |
|---------|---------------------------------------|-------------------------------------------------------------------------|
| 몬테레이 | Mr. Roque Antonio Ledl Suffo |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 ★ 니카라과 | 마나과 |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 ★ 파나마 | 센터 | 507-236-7495 |
| | Ms. Maritza E.R. de Leone |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 ★ 파라과이 | C.D. 이스트 |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 ★ 페루 | 쿠스코 |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entro@yahoo.com |
| | 리마 |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
| |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 51-1-4667737 chinghailimaperu@hotmail.com |
| | Mr. Victor Carrera | 51-1-2650310 |
| | Ms. Mercedes Rodriguez |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
| | Mr. Luis Rebaza | 51-44-260871 larv@terra.com.pe |
| ★ 살바도르 | 산 살바도르 |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 ★ 트리니다드 | 아일랜드 |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net.tt |
| ★ 캐나다 | 에드몬톤 |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
| | Mr. & Mrs. Dang Van Sang |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
| | Kingston |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
| | 런던 | 센터 1-519-438-3702 unifself@yahoo.com |
| | 몬트리올 | 센터 1-514-277-4655 |
| | Ms. Euchariste Pierre |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
| | Mr. Hung The Nguyen |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
| | Mr. & Mrs. Nai-Chi Hsu | 1-450-647-4871 |
| | Mr. Armand Laplante |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
| | 토론토 | 센터 1-416-503-0515 |
| | Ms. Diep Hoa | 1-905-897-0650 |
| | Mr. & Mrs. Lenh Van Pham |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
| | 밴쿠버 |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66@shaw.ca |
| | Ms. Sheila Coodin |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
| | Ms. Nguyen Thi Yen | 1-604-581-7230 |
| ★ 미국 | 애리조나 :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yahoo.com |
| | Mr. & Mrs. Kenny Ngo | 1-602-404-5341 |
| | Mr. Robert Jeffreys | 1-501-253-8287 bobj@arkansas.net |
| | 아칸소 : | |
| | 캘리포니아 : | |
| | *로스앤젤레스: | 센터 1-909-674-7814 |
| | Mr. & Mrs. Tsung-Liang Lin | 1-626-914-4127 tillin54@hotmail.com |
| | Mr. & Mrs. Dong Phung |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
| | Mr. Gerald Martin | gmartin0999@hotmail.com |
| | *새크라멘토 |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
| | *샌디에이고 |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
| | Mr. & Mrs. Tran Van Luu | 1-619-475-9891 |
| | *샌프란시스코 | 센터 KHOALUONG@aol.com |



| | | | | | |
|----------------|-----------------------------|-------------------------------|--|------------------|------------------------------------------------|
| | Mr. & Mrs. Khoa Dang Luong | 1-415-753-2922 | | | |
| | Mr. & Mrs. Dan Hoang | 1-415-333-9119 | | | |
| | | sfcenter@hotmail.com | | 노스캐롤라이나 : | success@coachdebra.com |
| *산 호세 | Ms. Sophie Lapaire | 1-650-988-6500 | | 오하이오 : | 1-704-535-3789 |
| | | Sophie.Lapaire@eng.sun.com | | | 1-513-887-8597 |
| | Mr. & Mrs. Edgar Shyuan | 1-408-463-0297 | | | von@swoca.net |
| | | Edgar-Teresa@worldnet.att.net | | | 1-513-381-4554 |
| | Mr. Loc Petrus | 1-510-276-4631 | | | wisdmeve@aol.com |
| | | petrusl2k@earthlink.net | | 오클라호마 : | 1-405-632-1598 |
| | Mr. Jim Su | 1-408-253-8516 | | | LTRAN2292@aol.com |
| | | sumajim@aol.com | | 오리건 : | |
| | Mr. James Kiet Le | 1-408-262-8233 | | *포틀랜드 |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
| | | James_Le@adaptec.com | | |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
| 콜로라도 : | Ms. Victoria Singson | 1-303-986-1248 | | | orcenter@hotmail.com |
| | | torahi@ureach.com | | | |
| 플로리다 : | | | | | 1-503-257-2437 |
| *케이프 코랄 | Mr. & Mrs. Thai Dinh Nguyen | 1-941-458-2639 | | 펜실베이니아 : | youping320@yahoo.com |
| | Ms. Trina L. Stokes | 1-941-415-3963 | | | 1-610-352-7787 |
| | | tls77@aol.com | | | DiepAshleyPa@yahoo.com |
| *올랜드 | Mr. Michael Stephen Blake | 1-407-333-0178 | | 텍사스 : | 1-215-879-6852 |
| | | ekalbekim@yahoo.com | | *오스틴 | |
| 조지아 : | 센터/ Bhiksuni Chan Mo | 1-770-936-9926 | | | 1-512-396-3471 |
| | | GeorgiaCnt@aol.com | | | jjdawu@yahoo.com |
| | Mr. James Collins | 1-770-934-2098 | | | 1-512-989-6113 |
| | Ms. Kim Dung Thi Nguyen | 1-404-292-7952 | | | trandungdean@yahoo.com |
| 하와이 : | 센터 | 1-808-735-9180 | | *달라스 | 1-214-339-9004 |
| | | hawaiictr@hotmail.com | | | DallasCenter@yahoo.com |
| | Mrs. Dorothy Kaomi Sakata | 1-808-988-6059 | | | 1-972-395-0225 |
| | | DorothySakata@aol.com | | | mechat@email.msn.com |
| 일리노이 : | Mr. tran, Cao-Minh Lam | 1-773-506-8853 | | | 1-972-517-5807 |
| | | caominhlamtran@hotmail.com | | | water96@yahoo.com |
| | Mr. & Mrs. Sang-Yoon Lee | 1-773-261-4033 | | | 1-972-206-2042 |
| | | ilovesuma@yahoo.com | | *휴스턴 | DallasCenter@hotmail.com |
| 인디애나 : | Mr. & Mrs. Duc Vu | 1-317-293-5303 | | | 1-281-893-8300 |
| | | duchanh@aol.com | | |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
| 캔터키 : | Mr. & Mrs. Nguyen Minh Hung | 1-502-695-7257 | | | cadamson@houston.rr.com |
| | | FNGUYEN@MAIL.STATE.KY.US | | | 1-281-370-3898 |
| 루이지애나 : | Mrs. Jon L Fontenot | 1-504-483-3234 | | | DNguyen376@aol.com |
| | | jfontenot@hotmail.com | | | 1-281-251-3199 |
| 메사추세츠 : | | | | *샌안토니오 | Robert, Yuan@Compaq.com |
| *보스턴 | 센터 | 1-978-436-9982 | | | 1-210-558-6088 |
| | | shinemound@earthlink.net | | 버지니아 : | 1-703-941-0067 |
| | Ms. Gan Mai-Ky | 1-508-791-7316 | | | 1-703-978-6791 |
| | Mr. & Mrs. Huan-Chung Li | 1-978-957-7021 | | | anhhlly@dotplanet.com |
| 메릴랜드 : | Mr. Nguyen Van Hieu | 1-301-933-5490 | | *버지니아 비치 | 1-757-588-8468 |
| | | HughMDCenter@yahoo.com | | | davidkyoung@hotmail.com |
| | Mr. Robert Ectman | 1-301-972-5654 | | 워싱턴 : | |
| | | bce94@hotmail.com | | *시애틀 | Mr. Ben Tran 1-425-643-3649 |
| 미시간 : | 센터 | 1-248-370-2924 | | | benptran@usa.com |
| | | smmicenter@yahoo.com | | | 1-206-228-8988 |
| 미네소타 : | Ms. Quach Ngoc | 1-612-722-7328 | | | edtan@usa.com |
| | | quach001@msn.com | | *요밍 |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
| 미주리 : | | | | | sumaemc@yahoo.com |
| *제퍼슨 | Ms. Mary E. Steck | 1-573-761-9969 | | ★ 푸에르토리코 | |
| | | MSteck5208@aol.com | | 카리비 |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
| *롤라 | Mr. Genda Chen | 1-573-368-2679 | | | disnalda@caribe.net |
| | | gchen@umr.edu | | 샌주안 | 1-787-723-7138 |
| 네브라스카 : | Ms. Celine Robertson | 1-402-483-4067 | | | shantiragyi@hotmail.com |
| | | crobert@lps.orgu | | | |
| 네바다 : | | | | ***아시아*** | |
| *라스베가스 | Ms. Helen Wong | 1-702-242-5688 | | ★ 아르메니아 |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
| 뉴저지 : | 센터 | 1-973-209-1651 | | |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 | | c_newjersey@yahoo.com | | ★ 포모사 | |
| | Mr. & Mrs. Nghiem The Trung | 1-609-667-3829 | | 타이베이 | 센터 886-2-2375-7527 |
| | | albert_nghiem@hotmail.com | | | smchtp@ms33.hinet.net |
| | Mr. Chang-Sheng Chou | 1-973-335-5336 | | | 886-2-23756784 |
| | | JohnChou@ymusa.com | | | shloh@ndmctsg.hk.edu.tw |
| 뉴멕시코 : | Mr. & Mrs. Nawarskas | 1-505-822-1560 | | | 886-2-23890885 |
| | | anawarskas@hotmail.com | | | 886-37-221618 |
| 뉴욕 : | | | | | Mr. Chiu Min Fen 886-37-221618 |
| | Mr. & Mrs. Zhihua Tung | 1-718-837-4884 | | 미야오리 | Mr. & Mrs. Chen Tsan Gin 886-37-724726 |
| | | dong@phys.columbia.edu | | | Mr. Chu Chen Pei 886-7-7534693 |
| *로체스터 | Ms. Debra Couch | 1-716-256-3961 | | 까오슝 | Mr. & Mrs. zeng, Huan zhong |



| | | | | | |
|---------------|------------------------------------------|---------------------------------------------------------------------------|-----------------------|------------------------------------------------|--------------------------------------------------------------------------------------------------------------------------------------------------------------------------------------|
| ★ 홍콩 | 센터 연락인 사무실 | 852-27495534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알로르 세타르 조호르 바루 | Mr. Chiao-Shui Yu Mr. & Mrs. Chi-Liang Chen | 60-4-7877453 607-3516075 supreme2@tm.net.my 603-9287-3904 klsmch@tm.net.my 6012-259-5290 klgcp@hotmail.com 60-4-228-5853 pgsmch@pd.jaring.my 60-4-6420370 |
| ★ 인도 봄베이 | Mr. Suneel Ramaney | 91-22-282-0190 trust_god@indiatimes.com | 칼라룸푸르 | 센터 | |
| 캄커타 | Mr. Ashok Sinha | 91-33-655-6741 | 연락인 사무실 | | |
| ★ 인도네시아 발리 | 센터 | 62-361-231-040 begodnow@yahoo.com | 페낭 | 센터 | |
| 자카르타 | Mr. Agus Wibawa 센터 | 62-81-855-8001 62-21-6319066 smch-jkt@dn.net.id | ★ 몽고 울란바토르 | Mr. & Mrs. Lin Wah Soon | 976-11-364352 zbadnaa@yahoo.com |
| | Mr. Tai Eng Chew Ms. Lie Ik Chin | 62-21-6319061 62-21-6510218 financel@uei.com | 바가누르 | Mr. & Mrs. Gursad Bayarsaikhan | 976-31-21174 951-667427 |
| | Ms. Murniati Kamarga | 62-21-3840845 hai@cbn.net.id | ★ 미얀마 ★ 네팔 카트만두 | Mr. Sai San Aik | |
| 수라바야 | Mr. I Ketut P.Swastika 센터 | 62-21-7364470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 | 센터 | 977-1-254481 |
| | Mr. Harry | 62-31-594-5868 harry_1@sbj.dnet.net.id | | Mr. Ajay Shrestha |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
| 마젤랑 말랑 | Mr. Njo Kwat Gone Mr. Judy R. Wartono | 62-293-367-031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 포카라 | 센터 | 977-61-28455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
| 육야카르타 | Mr. Henry Soekianto Mr. Augustinus | 62-341-325-832 62-274-588-105 ingtyas@eudoramail.com | | Mr. Bishun Neupane |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
| ★ 일본 군마 | Ms. Hiroko Ichiba | 81-27-9961022 truelove@nth.biglobe.ne.jp | | Mr. Shiva Bastola |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
| 구마모토 | Ms. Mochinaga Eiko |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 ★ 필리핀 | Mr. Raj Jumar Lama | 977-61-31413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 도쿄 | Ms. Yukiko Sugihara | 81-3-3307-1643 call3840@pop07.odn.ne.jp | ★ 싱가포르 콜롬보 | 마닐라 센터 | 65-674-7001 chinghai@singnet.com.sg 65-6846-9237 |
| | Mr. Yoshie Takeda |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 스리랑카 콜롬보 | 센터 | 94-1-760927 jean@sol.lk |
| ★ 한국 | 출판사 | 82-2-2202-8090 chinghai@unitel.co.kr | ★ 태국 방콕 | 연락인 사무실 | |
| 서울 | 서울 센터 | 82-2-5772158 quanyim@unitel.co.kr | | 센터 | 662-674-2694 bkk_c@hotmail.com |
| | 유태인 이지자 | 82-2-7953927 82-2-599-1701 051-5819200 | | Ms. Laddawan Na Ranong |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
| 부산 | 부산 센터 | quanyin@kornet.net | 치앙마이 | Mr. Wu Peir Yuan | 66-1-8248294 66-53-217080 |
| | 송호준 황상원 이원석 | 82-51-9574552 82-51-8057283 82-51-8946645 | 하얏이 콘캔 | Ms. Siriwan Supatrchamnian | 66-53-387126 66-74-368329-30(c/o 155) |
| 전주 | 전주 센터 | 82-63-2747553 shc5824@hanmail.net | | 센터 | 66-43-261878 66-43-241718 |
| | 신현창 | 82-63-2729087 | *** 유럽 *** | | |
| 인천 | 인천 센터 | 82-32-5795351 |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센터 | Chinghai@A1.net 43-2955-70535 |
| 대구 | 이재문 대구 센터 | 82-32-2441250 82-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 Mr. & Mrs. Nguyen Van Dinh | 43-664-3909200 sound@gmx.at |
| | 김익현 한선희 차재현 | 82-53-6333346 82-53-7675338 82-53-8563849 | ★ 벨기에 브뤼셀 | Mr. Shih-Tsung Lu | |
| 대전 | 대전 센터 | 82-42-6254801 | | Mr. Hugo Berton | 32-1640-0377 universal@planetinternet.be |
| 광주 | 김수동 광주 센터 조명대 | 82-42-2547309 062-5257607 82-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 ★ 불가리아 소피아 | |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 안동 | 안동 센터 | 82-54-8213043 | ★ 체코 프라하 | 센터 | 42-02-6136-3031 prague-center@chinghai.cz |
| 영동 | 김삼태 영동 센터 | 82-54-8213043 054-5325821 houmri1@kornet.net | ★ 크로아티아 | Mr. Zeljko Starcevic |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 제주 | 제주 센터 | 82-64-996113 | ★ 덴마크 ★ 핀란드 헬싱키 | 연락인 사무실 | 45-66-190459 |
| ★ 마카오 | 센터 |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 | Miss. Luong Hoang Hanh | 358-9-8537455 hoanghanh.luong@luukku.com |
| ★ 말레이시아 | 연락인 사무실 | 853-532995 | | | |



| | | | | | |
|---------|-------------------------------------|--------------------------------------------------------------------------------------------|--------------------------|---------------------------------------|------------------------------------------------------------------|
| | Ms. Anne Nystrom | 358-9-793902 anne.nystrom@surgeu.fi | 말뫼 스톡홀름 | Mr. & Mrs. John Wu Mr. Mats Gigard | 46-40-973452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 ★ 프랑스 | | | | | |
| 파리 | 센터 Ms. Lancelot Isabelle | 33-1-4300-6282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웁살라 | Ms. Premila Perera Ivarsson | 46-18-302029 premila-perera@pharmacog.uu.se |
| 몽펠리에 | Ms. Ngo Thi Huong | 33-1-4376-1453 | ★ 스위스 | | |
| 아르테슈 | Mr. Nguyen Tich Hung | 33-4-67413257 | 제네바 | Ms. Feng-Li Liu | 41-22-7973789 gefliu@yahoo.com |
| ★ 독일 | Ms. Reynet Jeanine | 33-4-75376232 | | Ms. Klein Ursula | 41-22-3691550 |
| 베를린 | 센터 |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 ★ 영국 | | |
| | Mr. ChristianBastwoeste | 49-30-3470-9262 | 스토크홀름 | Mrs. Janet Weller | 44-1782-414989 janet.weller@Zoom.co.uk |
| 뒤셀도르프 | 연락인 사무실 | 49-5232-68564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 런던 | 센터 연락인 사무실 | 44-208-3742743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
| | 연락인 사무실 | 49-581-15491 | 서리 | Mr. Hu Tchang Rong | 44-1293-416698 |
| 함부르크 | Ms. Kang Cheng | 49-89-3616347 | ★ 스코틀랜드 | | |
| 뮌헨 | Ms. Johanna Hoening |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에든버러 | Mrs. Annette Lillig |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
| | | | 글래스고 | Mr. Robert Jackson | 44-141-637-7255 Robert.jackson@classicfm.net |
| ★ 그리스 | | | | | |
| 아테네 | Mr. Constantine Manos | 30-61-278106 Razahidah@hotmail.com | *** 오세아니아 *** | | |
| ★ 네덜란드 | | | ★ 호주 | | |
| 암스테르담 | Mr. Nguyen Ngoc Trung | 31-294-41-9783 Vothuong5@cs.com | 애들레이드 | Mr. Leon Liensavanh |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
| | Mr. Marcel Mannaart |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브리즈번 | 센터 Mr. Gerry Bisshop | briscentre@hotmail.com 617-3847-1646 |
| ★ 헝가리 | | | | | |
| 부다페스트 | 센터 |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u | Mrs. Tieng Thi Minh Chau | |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
| | Mr. Lux Tamas | 36-309-611994 | | Mr. & Mrs. Yun-Lung Chen | 617-3344-2519 |
| 지울 | Ms. Dora Seres | 36-1379-1924 |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 Mr. & Mrs. Ray Dixon | 612-6685-3248 rayandjulie@linknet.com.au |
| | Mr. Lehel Csaba |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캔베라 | Mr. & Mrs. Khanh Huu Hoang |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 ★ 아일랜드 | | | 멜버른 | 센터 | 613-9890-0320 Melbsmch@aol.com |
| 더블린 | Mr. & Mrs. Bernard Leech | 353-1-6249050 berardleech@unison.ie | | Mrs. Rosemary Nagtegaal | 61-3-9307-6982 |
| ★ 노르웨이 | | | | | |
| 오슬로 | Mr. Nguyen Ngoc Tai | 47-22-612939 norwayqy@hotmail.com | Mr. Pham Van Bon | | 613-9470-4573 |
| ★ 폴란드 | | | Mr. Alan Khor | | 61-3-9857-4239 |
| 슈체친 | Mrs. Grazyna Plociniazak | 48-091-4874953 | 퍼스 | 센터 | 61-8-9242-1189 |
| 바르샤바 | Mrs. To Soszynska | 48-22-6593897 | | Mr. David Robert Brooks | 61-8-9418-6125 daveb@inet.net.au |
| | quanyin@home.pl | | | Mr. Ly Van Tri | 61-8-9244-7661 |
| 로드츠 | Ms. Lukaszewska Mariola |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시드니 | Mr. Eino Laidsaar |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 ★ 포르투갈 | | | | Mr. Hong Bo |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 리스본 | Mr. Helder Hen Keon Kong | 351-1-920-4118 lisbon_center@notmail.com | 태즈메니아 | Mr. Carly skinner | 61-3-62282481 putters@bigpond.net.au |
| ★ 러시아 | | | ★ 뉴질랜드 | | |
| 모스크바 | Mrs. Leera Gareyeva |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오클랜드 | Mr. Kym Anton Toia | 649-419-4470 nzanton@yahoo.com |
| ★ 슬로베니아 | | |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 | Mr. Rastislav Alfonz Kovacic | 386-35-814981 dbk@siol.net | | Mrs. Chanwu Wong | 649-5340986 |
| ★ 스페인 | | | | Mr. Michael Lin |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
| 마드리드 | 센터 | 34-91-5470366 | | Mr. Glen Vincent Prime | 647-849-4442/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
| | Ms. Lidia Kong | 34-91-7756670 | | Ms. Sharlene Lee | 64-3-5391313 shale@ihug.co.nz |
| 말라가 | Mr. Wang Ya-King | 34-95-2351521 | | Ms. Joy Daniels | 647-544-5268 |
| 발렌시아 |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 34-96-3336208 | 크라이스트처치 | | |
| | Vegetarian House | 34-96-3744361 | 해밀턴 | | |
| | Mr. Yu Xi-Qi |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넬슨 | | |
| ★ 스웨덴 | | | | | |
| 엔젤홀름 | Mrs. Luu Thi Dung |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 타우랑가 | | |
| 오레 | Ms. Viveka Widlund |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 | | |



해피 요기 세상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자 SM 전의 팀은 우리 모두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상을 포근히 감싸는 신의 사랑”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서는 순면 운동복과 사랑의 모자, 목도리 등 스승님의 최신 디자인 겨울 의상들이 선보였다. 올 겨울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 순면 크루넥 운동복

가슴에 덧대어 수놓아진 SM Happy Yogi 로고와 소매 부위에 가늘게 두 줄로 새겨진 같은 로고가 특징.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운동복 상하의는 팔목과 발목을 탄력 있게 처리했으며, 옷맵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노란색, 흰색, 청색 등 3종류.

2. 순면 하이칼라 운동복

칼라 안감에 옷 색깔의 대비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 칼리를 접었을 때 산뜻한 모양을 연출한다. 흰색, 노란색, 청색 등 3종류.



3. 사랑의 모자와 목도리

100% 폴리에스테로 만들어진 최신 디자인. 안팎 모두 벨벳으로 처리해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편안하다.



사랑의 모자

자주색 : 홀겹

파란색/흰색, 흰색 : 양면

파란색/빨간색의 3종류

목도리

홀겹 : 자주색

양면 : 파란색/흰색, 흰색,

파란색/빨간색의 3종류

영혼을 올리는 그림 향수

진 을선 사저/ 한국 대우센터 (원문 한국어)

입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스승님의 그림 “향수” 복제화를 한 점 구했다. 그 당시 전시되고 있었던 스승님의 그림들은 대부분 우아한 대형 액자에 표구되어 있었지만, 난 웬지 단순한 액자에 담긴 이 작은 그림이 마음에 들었으며, 집에 돌아와 그림을 거실에 걸어 놓고는 날마다 바라보았다.

그림에는 ‘화룡’이라는 어울락 특산 과일이 푸른 잎사귀가 깔린 금빛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는데, 반으로 쪼개진 화룡은 수없이 많은 작고 까만 점(씨앗)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색감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구성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명상 중에 반으로 쪼개진 화룡을 보았는데, 그 까만 점들이 밤하늘에 수



놓인 반짝이는 별들로 바뀌었다. 다음 번 명상할 때는 열매가 빛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마치 압축 속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등대와 같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그렇게 많은 그림들 중에서 왜 ‘향수’를 선택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종종 심한 향수병을 앓던 내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이 그림을 알아 보았던 것이다.

스승님의 그림은 모두 생명력과 힘이 넘쳐흐르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 작은 점 하나도 예사로운 것이 없다. 비록 복제화 이긴 하지만, 스승님의 가피력 덕분에 나는 이런 작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스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온 우주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내게 일깨워 주셨다.



칭하이 무상사 가곡 창작집(DVD, CD)

칭하이 무상사에 의해 작곡된 이 수행가곡 모음집에는 비범한 의미를 전달하는 작곡가의 독특한 능력과 아름다운 예술적 재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승님은 어울락, 중국, 서양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한데 모아 아름답게 조율한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작곡하셨습니다. 천상의 영감을 받아 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쓰여졌기에 한 곡씩 감상할 때마다 그 시어와 음률 속에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요청에 의해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 진귀한 천상의 음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